

PRESSBOOK

MR.

The Neighbor

March 2017



The Neighbor
March, 2017
Seol Mi-Hyun



Interview

이상한 나라의 Mr.

그의 이름은 Mr. 태어난 곳은 일본의 쿠베 지역이라고 했다. 한때 가이판 건 경보의 바다를 아무리 튀겨도 그가 태어났다는 루머는 갈색조차 되지 않으니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제자로 일본 네오팝을 앓는 그 이름부터도 이상한 '니스'가 서울에 왔다

Editor SEOL MI HYUN

© 2017 THE NEIGHBOR MAGAZINE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are for personal use only.



The Neighbor March, 2017 Seol Mi-Hyun



1 설치 작업에 한창인 미스터. 2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녀상 조각이 막 전시장에 담도했다. © 2016 Mr./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of Galerie Perrotin



MR. 'Tropical Juice @ School', 2016, Acrylic on Linen Mounted on Wood Panel, 70 X 49, 1cm © 2016 Mr./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Galerie Perrotin

애니메이터? 만화 작가? 그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다. 괜한 오해도 아닌 것이, 그의 작품에는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봤을 법한 카다란 눈망울의 소녀들이 등장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네오팝 아티스트 미스터(Mr.).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오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네오팝은 1960-70년대에 전성기를 누려 현대미술의 한 장을 장식한 팝아트의 현대적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팝아트의 새로운 역할을 이끈 네오팝 아티스트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서구 위

주의 팝아트 구도에 일본 작가들의 함류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나라 요시토모, 무라카미 다카시를 주축으로 한 일본의 네오팝은 자국을 넘어 전 세계 미술 시장을 뜨겁게 노크했다. 이들의 뒤를 잇는 2세대 네오팝 작가, 그가 바로 미스터이다. 무라카미 다카시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 그에 대한 궁금증은 이미 포화 상태다.

그가 개인전 설치를 위해 서울에 당도한 날은 우연찮게도 12월 9일. 한반도 역사의 소용돌이가 돌아치는 바로 그날이었다. 설치 작업으로 어지러운 전시장 틈으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녀들이 먼저 고개를 내밀었고, 'Mr.' 모자를 눌러쓴 진짜 미스터가 우리를 맞았다. "무라카미 다카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또 제가 요미우리 자이언츠 야구팀의 아이론이라 할 나가시마 시게오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의 별명이 미스터 자이언트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저와 그가 닮았다고 하더군요." 야구선수와 예술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지만, 도대체 무엇이 닮았다는 것일까. "나가시마 시게오는 이상한 면이있긴 해도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특이한 말과 행동에서 매력을 느끼죠. 무라카미 다카시 역시 그 점이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름에 얽힌 사연이야 그렇다 치고, 그가 태어난 쿠와는 대체 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조차 종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쿠와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장소예요. 당연히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름도 모자라, 태어난 곳까지 가상의 지역을 만들었다니. 사람들의 말마따나 제법 '이상한' 구석이 많은 미스터다. "어린 시절은 그저 평범했어요. 유행하진 않았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죠. 그때도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미술 대학을 거쳐 무라카미 다카시의 스튜디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10년을 어시스턴트로 지냈다. 무라카미 다카시의 대표작 중 하나인 '카이카이 키키가 탄생한 현장'에 그 역시 함께있었다.